

2012 年 5 月 10 日、韓国 HERALD MEDIA が、 奨学候補生現地(大韓民国)選考会の応募者募集に協力していただきました!



돈 없는 자의 해외유학?...각종 장학금을 노려라

2012-05-10 11:21

[헤럴드경제=김지윤 기자] 누구나 한 번씩 꿈꾸는 해외유학, 그러나 등록금을 훌쩍 넘기는 유학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. 가난하다고 해서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,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목표를 잃을 수는 없는 법.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, 누구에게도 해외유학의 기회가 열린다.



▶일본에서 학위를 따고 싶다면= 일본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매년 8 월 경 모집하는 교리쓰국제교류장학재단의 ‘교리쓰국제교류장학재단 장학금’을 노려볼 만하다. 이듬해 4 월부터 일본의 대학원, 대학, 전문학교에 2 년 이상 재학할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, 청강생이나 연구생, 교환학생 등은 제외된다. 서류 및 면접으로 총 3 명이 선발되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00,000 엔(약 140 만원)씩 2 년 간 총 2,400,000 엔(약 3,400 만원)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. 자세한 사항은 교리쓰국제교류장학재단의 홈페이지(www.kyoritsu.or.kr)를 참고하면 된다.

jee@heraldm.com

Copyright Herald Media INC. All rights reserved.
Contact member@heraldm.com for more information

【日本語訳】

《お金が無い者の海外留学?...各種奨学金を狙え》

[HERALD 経済=キム・ジユン記者]誰でも一度は考える海外留学。しかし、学校の授業料をはるかに超える留学費用は大きな負担となる。貧しいからといって夢も貧しくなるしかないという…。経済的負担の為に目標を失うわけにはいかない。もう少し関心を注げば、誰でも海外留学のチャンスが開かれる。

▶日本で学位を取得したいなら=日本留学を考えているなら毎年 8 月頃に募集をする共立国際交流奨学財団の“共立国際交流奨学財団 奨学金”を狙うといい。翌年 4 月から日本の大学院、大学、専門学校に 2 年以上在学する予定の者を対象とし、聴講生や研究生、交換留学生等は対象外とす。書類及び面接を通し 3 名が選抜され、選抜された奨学生には 100,000 円(約 140 万ウォン)ずつ 2 年間、総 2,400,000 円(約 3,400 万ウォン)が奨学金として支給される。詳細は共立国際交流奨学財団のホームページ(www.kyoritsu.or.kr)を参考にすればよい。